

애도의 방식

2024.10.1-10.19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AC Artist
신진호

DAC Artist
DOOSAN
Art Center
Artist

공연예술 분야의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신작 제작, 작품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아티스트
Artist
(2008-2024)

강동훈(극작가) 박주영(작·연출가)	김은성(극작가) 〈빨〉〈목란언니〉
배해률(극작가) 〈시차〉	여신동(무대디자이너·연출가) 〈나는 나의 아내다〉〈배수의 고도〉 〈사보이 사우나〉〈목란언니〉
신진호(연출가) 〈애도의 방식〉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잠 못드는 밤은 없다〉〈인어도시〉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폭스파인더〉
강현주(작·연출가) 〈잘못된 성장의 사례〉	성기웅(작·연출가) 〈가모메〉〈소설가 구보씨의 1일〉 〈깃븐우리절은날〉
진해정(작·연출가) 〈러브 앤 인포메이션〉	이자람(국악창작자) 〈판소리 단편선-주요섭 추물/살인〉 〈사천가〉
진주(극작가) 〈클래스〉	서재형(연출가), 한아름(극작가) 〈청춘, 18대 1〉
추다혜(국악창작자) 〈광-경계의 시선〉	
이승희(국악창작자)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	
김수정(작·연출가) 〈김수정입니다〉〈이갈리아의 딸들〉	
윤성호(작·연출가) 〈꿈이 아닌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경성(작·연출가) 〈워킹 홀리데이〉〈비포 애프터〉 〈서울연습-모델, 하우스〉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배우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 〈죽음과 소녀〉〈오셀로〉	
양태석(드럼아티스트) 〈Drum? Quest Solo〉 〈솔로 드럼 퍼포먼스〉, 앨범 〈Human Fractal〉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강동훈(극작가)
Kang, Dong Hoon
Playwright



박주영(작·연출가)
Park, Ju Young
Playwright · Director



배해률(극작가)
Bae, Hae-youl
Playwright



신진호(연출가)
Shin, Jin Ho
Director



강현주(작·연출가)
Kang, Hyun Ju
Playwright · Director



진해정(작·연출가)
Jin, Hae Jung
Playwright · Director



진주(극작가)
Jin, Ju
Playwright



추다혜(국악창작자)
Chu, Da Hye
Minyo Artist



이승희(국악창작자)
Lee, Seung Hee
Pansori Artist



김수정(작·연출가)
Kim, Su Jung
Playwright · Director



윤성호(작·연출가)
Yoon, Sung Ho
Playwright · Director



이경성(작·연출가)
Lee, Kyung Sung
Playwright ·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Park, Ji Hye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손상규 배우
Son, Sang Kyu
A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조아 배우
Yang, Jo A
Actress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종욱 배우
Yang, Jong Ook
Actor



양태석(드럼아티스트)
Yang, Tae Seok
Drum Artist



김은성(극작가)
Kim, Eun Sung
Playwright



여신동(아트디렉터·연출가)
Yeo, Shin Dong
Art Director



성기웅(작·연출가)
Sung, Ki Woong
Playwright · Director



이지람(국악창작자)
Lee, Ja Ram
Pansori Artist



서재형(연출가)
Seo, Jae Hyung
Director



한아름(극작가)
Han, Ah Reum
Playwright

“삶이 곤경에 빠졌을 때를 반추해 보면, 내가 만드는 연극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신진호는 어디에서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줄 아는 연출가다. 곳곳하고 대범하며 느린 그의 작업도, 그 특유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2년 전 처음 만난 그의 무대는 생경했고, 그 독특한 감각과 경험이 계속 연극의 주변을 맴돌게 했다. 지난해부터는 작업 동료로 함께 하면서 그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닿지 못한 영역이 있음을 안다. 그 세계가 얼마나 촘촘히 쌓여있는지, 여러 겹의 피를 벗겨내면 얼마나 소용돌이치는 삶이 담겨 있을지. 평소 깊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는, 마치 각자가 스스로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인다. 나는 그 방식에 마음이 동하고 그 힘을 믿고 있다.

이 인터뷰가 신진호의 세계를 완벽히 담아내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관객들이 그의 무대를 한 겹 더 벗겨내 들여다보고, 아직 들려주지 않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일상에서 사람들을 자주 관찰하는 것 같던데,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나,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해서 쳐다보게 된다. 연극 시작하고부터 본능적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에 끌리는 것 같다. 어떤 날은 버스 앞자리에 앉은 분 이야기를 듣다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었다.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이 연극의 자양분이 되는 것 같다.

— 작업 중에 종종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더라, 어떤 순간인가.

미처 감각하지 못했던 주변부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서 나온 것인지 내가 놓치고 있던 그 이야기가 연극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삶들을 깨닫는 순간 참 미안하고 눈물이 난다. 세상을 더 사랑해야겠다고 느낀다. 또 연극 안에서의 상황, 이야기들이 내 삶과 맞닿아있을 때도 그렇다. 연극은 삶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싶다. 인생 전부를 하나하나 모두 꺼내놓듯이. 지금도 작업 과정 중에 가족 이야기나 내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배우들과 진솔하게 나누려고 한다.

— ‘연극은 삶이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 생각은 언제부터였나.

다 그만두고 싶던 때가 있었다. 연출을 시작하고 초창기에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아주 힘들기도 했고 내 정체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 특히 가족이 힘들었을 때, 가족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연극을 하나, 생각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난 후에 알게 됐다. 그동안 내가 피상적인 질문들만 해왔구나. 나에게든 관객에게든. 내가 원하는 건 열심히 잘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 세상과 이야기에 더 천착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연극에는 진짜 삶이 걸려있었고 삶이 걸려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걸, 그때 눈을 뜬 거다. 연출로서 이야기의 판을 깔아놓을 때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일이고 작품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다. 연출은 그 세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삶이 곤경에 빠졌을 때를 반추해 보면, 내가 만드는 연극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 ‘연극하는 이유’를 더 들고 싶다.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신비롭다. 사각의 어둠 속에서 어느 순간 모든 일들, 삶(생)이 다 발생하지 않나. 그 순간만큼은 나와 저 삶들이 계속 만나고 있다는 생각, 그 기쁨 때문에 연극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관객이었을 때부터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 ‘더 신나는 세계가 있을 거야! 연극에서는.’

— 연극을 시작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을까.

감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지루한 걸 왜 하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궁금했다. 저 사람들이 그토록 재미있어하는 걸 보니까 나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산울림 소극장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게 됐다. 정확한 대사는 잘 기억 안 나지만 ‘내가 잠들어 있었을 때 너희는 뭘 했지? 내가 진짜 잠들어 있었던 게 맞는 건가...’와 비슷한 구절이었던 것 같다. 극장에서 이 대사를 듣는 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 그때 배우가 울고 있었는데 나도 울고 있었다.

— 왜 울컥했나.

순간 너무 놀랐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뭘 했을까?’ 굉장히 심오한 이 질문을 배우가 무대에서 직접 던지고 있었다. 연극을 본다는 것은 그런 놀라움의 연속이다. 나와 전혀 상응하지 않을 것 같은 말들과 갑자기 만난다. 연극 현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순간들을 마주칠 수 있다.

— 정규과정을 밟지 않고 연출가가 됐는데,

처음부터 연출가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냥 책 보고 공연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연극을 직접 만들어 볼 용기도 생겼고, 무엇보다 안 배운 사람이 연극을 하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다.

— 연출가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오페라이터, 하우스, 티켓 업무 같은 극장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 그렇게라도 극장에 붙어있으면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나 보다. 연극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러다 2018년에 <종이인간>으로 첫 연출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왜 주어진 역할에만 몰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났다. 그래서 배우가 다른 역할들로 바뀌는 실험이 무대 위에서 계속 벌어졌으면 했고, 연극 안에 그런 이상한 문법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아르코 '차세대열전 2019!'에서 <우주에 가고 싶어 했었으니까>라는 작품을 올렸을 때 미래 세대에 대한 궁금증, 가령 미래 사회의 윤리나 죽음, 불안 같은 상념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다. 마침 팬데믹이었고 나도 많이 주저앉았던 시기였다.

2021년 <카르타고>에서는 사회 범죄와 윤리, 청소년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려 했고 그것이 지금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그 시기에 마주친 어른들이나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었다. 결국 우리 사회시스템의 병폐가 청소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애도의 방식>은 이전의 고민이 총체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청소년의 이야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로 가늠할 수 없는 방식들, 그리고 이들 부모가 가진 책임감이 복잡다단한 이야기들로 발전되는 것까지도.



연극 <카르타고>(2021) @두산아트센터

— 두산아트센터와는 <종이인간>부터 <카르타고> 그리고 이번 <애도의 방식>까지 함께 작업해 왔는데,

두산아트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DAC Artist 이전부터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가감 없이 해주는 사람들이다.

— 그동안 성장했다고 느끼나.

많이 배웠다. 두산과 작업하는 방식은 민간단체로서 프로덕션을 꾸리고 제작하는 과정과는 다르다고 느낀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많은 소스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품 발굴 단계부터 제작 과정 전반을 창작자와 긴 호흡으로 함께한다. 이번 <애도의 방식>의 경우 워크숍 기간을 포함해 5~6개월을 같이 준비했다. 안고 있던 시간이 가장 길었던 작업이다. 덕분에 평소보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게 다뤄보는 경험을 하게 됐다.

— DAC Artist 선정 후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 '정리하지 않고, 비워내는 작업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뭔가를 비워내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다. 단순히 욕심부리고 있었던 세계를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상을 발견해 내는

작업이었으면 한다. 또 그것이 더 세련되고 우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접근이 작업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지금껏 본인에게 영감을 준 창작자나 작업이 가진 공통적인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루함을 견뎌낸 흔적이 보이는 작업. 진심 어린 과정이 느껴지는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는다.

— 본인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나.

처음에는 관객이 극장에 오는 것 자체가 좋았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관객이 직접 사유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한 것 같더라. '관객이 무엇을 사유하게 될 것인가'를 연출이 가장 고민하고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잘 먹고 잘사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시스템이 망각해서 혹은 자신만의 시스템이 붕괴해서 홀로 놓인 이들에 관한 것하기를 바란다. 연극을 통해서 관객들이 잊힌 삶들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 보호받지 못하는 삶들에 지금 가장 시선이 가는 건가.

올해 <카르타고>를 다시 올리면서 더욱 그렇다. 우리 사회가 막고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사회로부터 낙인찍힌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보호받지 못하는 삶들을 만나보고 싶다. 실재하는, 실재했었던, 실재할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들 말이다.

— 창작자로서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물론 멋진 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이 흥미로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고 전달할지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시스템이라는 주제가 아직은 매력적이고, 더 주변부의 이야기를 찾아 무대에 올려놓고 싶다. 다만 어떤 다른 방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갈지는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연극 <카르타고>(2021) @투산아트센터

우리의 애도의 방식에 대한 대화

정리 김윤식(각색 작가)

대담자 안보운(작가), 김윤식(각색 작가),
신진호(연출가)

신진호 연출은 안보운 작가의 팬이었고, 신진호 연출과 학교 동기인 김윤식 작가는 2023년 <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는 작품에서 연출과 각색 작가로 작업했었다.

안보운 작가, 신진호 연출가, 김윤식 각색 작가는 5월 초 처음 만나 식사를 했다. 그리고 9월 중순, 두 번째 만남에서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의 글은 세 사람이 두 번째 만남에서 나눈 이야기들이다.

각색에 대해.

김윤식 아직 각색 대본을 못 보셔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어요.

안보운 공연 광고를 보니까 원래 이름이 없던 인물들에게 이름이 주어졌더라고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분명해지잖아요. 인물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삶이 부여되는 순간이니까.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네가 소유이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신진호 저희 둘이 상의를 많이 했어요. 여름 내내 얘기 나누고. 원작자인 안보운 작가님의 세계를 김윤식 작가도 조심스러워하고 힘들었던 지점도 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가님이 이 작품을 보시고서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있었어요.

김윤식 제가 첫 만남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디까지 각색해도 되냐, 어떤 부분은 꼭

놔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 없으시냐. 그때 분명히 안보운 작가님께서 마음껏 편하게 각색하시라 했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 걸리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이번이 세 번째 각색인데, 이렇게 살아 있는 작가의 작품을 각색하려니까. (웃음) 쉽진 않더라고요.

안보운 제 미친한 경험으로는 최호영 연출님이 제 원작 소설 <순환의 법칙>을 연극으로 올리셨을 때 공간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놀랐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소설 문장이 거의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꽤 많았는데 배우가 그 공간에서 걷는다, 서 있다는 것만으로 입체감이 생기면서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완전하게 다른 세계라고 인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편하게 하시라, 애초에 다르다, 말씀을 드린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성되는 세계가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소설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결국은 진심을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나 발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근원에 있는 건 결국은 같을 거니까요. 그러면 연극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실망한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불안하네요. (웃음)

애도하는 방식에 대해.

신진호 소설 「안전한 사과」에서는 소윤이라는 인물이 오빠가 죽인, 그러니까 오빠가 망가뜨린 가정과 오빠가 망가뜨린 나, 도윤이 그리고 엄마, 배 속에 있었던 아기 그리고 죽은 강아지까지. 그런 모든 사람의 애도를 소윤이라는 인물이 다 가지고 있고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동주는 무슨 애도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동주가 어쩌면 미정보다 훨씬 더 큰 애도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동주는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일조차 사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국에 동주는 승규에 대한 엄청난 애도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출간 소설 「딱 한 번」에서는 미정과 석현이 애도하는 방식이 너무 슬퍼하거나 안 좋은 세계로 빠져나가기보다는 다음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도약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 작품마다의 애도의 방식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관객한테 어떻게 가닿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감각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안보윤 사실 처음 세 편을 묶으신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됐었던 건 <애도의 방식>이라는 테마가 걸리게 되는 순간 다른 소설에 달라붙는 것들이 생겨야 하잖아요. 이야기가 완전히 흩어지면 안 되니까. 사실 '완전한 사과'에서 소윤이 하는 애도 중에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새언니의 뱃속에 얹은 손톱을 가지고 있는 내 조카가 있었을지도 몰라.' 이런 식의 것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소윤이 계속해서 '나는 함부로 따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소윤이 묵인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간 오빠의 폭력을 방조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폭력 탓에 죽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애도와 슬픔, 죄책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거든요. 그러면 애도의 방식이라는 제목에 충분히 붙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동주 이야기를 쓸 때는 소설이다 보니까 열린 형태가 강화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애도의 방식이라는 걸 독자분들이 마음껏 유추하게끔 열어둔 상태여서 두 분이 어떻게 해석하실까? 저는 이게 또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납작한 동주의 애도 방식은, 결국은 미정도 또 다른 피해자이잖아요. 나중에 「딱 한 번」에도 등장하지만 나는 단지 열심히 살아가고 생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나의 아이는 방치되었고 그 애가 뺨뿔어져서 결국은 돌연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서야 뒤늦게 '이 애의 죽음을 밝혀내는 게 내가 이 아이를 애도하는 방식인가?' 하면서 결국 2차 가해를 하러 다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동주 입장에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먼저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자들이 먼저 약자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미정이 와서 나를 다그칠 때도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던 하지만 이 사람도 너무나 명백하게 상처받았고, 그 상처가 다름 아닌 같은 인물에게서 온 상처이기도 한 이런 식의 것들이 미정에게 독한 말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동주는 '오지 마세요.'라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미정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 참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로서 약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동주의 어떤 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동주가 어린아이 그대로의 모습이거나 억울한 모습이라면 사실 미정에게 따져야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싶으면 알려주겠다. 당신 아들이 내게 뭘 했고 마지막에 뭘 했는지 나를 끝까지 때리려고 하다가 알아서 떨어진 거다."라고 화를 낼 법도 한데, 동주는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행위가 승규를 애도하는 혹은 또 다른 피해자를 배려해 주는 또 다른 애도의 방식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일차적인 좀 납작한 애도였어요. 나머지는 독자분들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열어둔 상태여서 저는 그걸 책임지지 않아도 됐었어요. 두 분은 세 가지 이야기를 묶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답을 찾아내신 다음이어야 하니까 저보다 더 복잡하셨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신진호 제가 어려웠던 점은 안보윤 작가님

말씀처럼 미정이 동주에게 사과하러 오거나 찾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2차 가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소설 '애도의 방식'만 봤을 때는 미정이가 사과하는 것 자체가 처음, 중간, 끝이 있는 이 사람만의 어떤 선택이 되고 이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한 번」이라는 작품을 붙여놓고 보니까 미정이가 동주한테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장면이 무대에서 발화했을 때 미정이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지금 프로덕션에서는 미정이가 사과하는 게 애매모호하게 찍히거든요. 사과를 안 하거나, 동주를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동주를 마주하지 못한 채로 「딱 한 번」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미정이 가지는 마음에 대해서 가능하게끔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과정 중에 그게 가장 어려웠었어요. 미정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이번 챕터에서는 그냥 그대로 둔 상태로 지나가게끔 만들어서 다음에 가능하게끔 만드는 방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 가장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안보윤 저는 지나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소설집에서 「딱 한 번」을 뺐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유가 지금 해석하신 것과 유사해요. 미정의 서사가 들어가면 모든 이야기가 딱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도의 방식에서 이 이야기를 충분히 열었다고 생각했고 제가 판단해서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미정이가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판단과 저울질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정이 뭔가가 해결됐다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여기서 해결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미정에게는 이 일들이 끝없이 남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일단락이지 이것은 해소도 아니고 극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딱 한 번」을 소설집에 붙여보니 갑자기 이야기가 딱 조립되어 버리니까 의도했던 것과 달라지는 것 같아 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정이 무언가를 일단락시키는 대사를 발화하지 않는 것이 이야기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각색 전체는 잘 모르지만 그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요?

신진호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정이가 했던 얘기가 크게 남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이미 죽었다.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일을 하는 부모는 어떤 감각일지 생각이 들었어요.

안보윤 제가 「딱 한 번」의 미정 이야기에서 쓰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미정이 아들이 부재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부재 이전엔 너무 바쁘고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어떻게 챙겨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좀 간과하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재 이후로 갑자기 아이의 취향이 보이고 그 돈의 출처가 뭐였는지, 뭘 좋아하는 아이였는지, 애가 어떠한 교우 관계 속에서 무슨 사고들이 있었는지가 보이고 하는. 이 사람은 되게 기이한 방식의 유가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었다고 해서 온전히 그 상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뭘 잃었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쓰고 싶어서 미정의 이야기가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정은 복합적인 어떤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김윤식 미정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연출님과 계속 보류했던 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소설의 마지막처럼 미정이 동주에게 사과하고 떠나는 것이 정말 괜찮은 엔딩일 것인가 하는 지점이에요. 원작 소설의 엔딩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한 번에 조립이 되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엔딩들을 써서 연출님에게 보냈는데 아직도 보류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미정이 동주를 찾아가요. 그리고 미정이 동주에게 물어봐요. 손 한번 잡아봐도 되냐고. 미안하다는 말 없어요. 그리고 동주가 답해요. '아니요'라고. 연출님과

더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정을 내리긴 해야 할 텐데요.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김윤식 '동전의 어떤 면이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몫이다'라는 대사를 넣었다가 연습 과정에서 뺐어요. 전 이 대사가 이 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맞고 틀리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옳은 것의 선이나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했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등장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서 최대한 차갑게 서술해서 관객에게 판단의 여지나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 작품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결국엔 관객분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삶을 기반으로 이 이야기와 인물들을 볼 거라고 봐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또 어떤 인물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연출님은요?

신진호 욕심은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관객 만나기인 것 같아요.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이런 개념은 이제 없어요. 이거 잘 나오겠다, 잘 나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요. 이 작품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골조나 코어들이 있잖아요. 그 코어들을 정확하게 관객들한테 전달만 잘해준다면 분명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직간접적인 경험이든 아니면 인물을 이해해 내는 방식이든 뭐든지 간에. 그게 저한테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감히 관객한테 이 칼자루를 쥐여주거나 이렇게 봐 달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거죠. 애도 그 자체, 그게 관객한테 숨겨진 채로 가져가야 하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인물들은 슬픈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슬프게 표현되나 하는 이런 이야기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동주처럼 아무런 말 없이 있는 그 방식만으로도 그 애도가 느껴진다면, 그걸 관객이 감각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성공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도 있고 너무 심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연극은 그런 느낌의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신진호
연출



신진호

DAC Artist

연출

〈광!〉〈라이더-On the radar〉〈사라의 행성〉〈카르타고〉
〈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소년대로〉〈동네3-운명의 요구〉
〈햄릿연습〉〈종이인간〉 외

각색·연출

〈환한 밤〉〈우주에 가고 싶어 했었으니까〉〈남떠러지의 착각〉 외

〈애도의 방식〉은 우리 사회 안에서 개인의 애도 과정이 얼마나 고유하고 개인적인 것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

‘죽음’ 자체보다 그 이후의 감정과 경험에 주목했습니다.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들의 심정, 끝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그들의 경험을 상상해야 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발걸음은 무겁고 연습실은 매일 긴장감으로 가득찼습니다.

복잡하고도 모호한 현실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습니다.

작품 속 선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들을 함께 지켜보며 타인의 고통과 더 깊이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과

가만한 사람 소윤. 오빠는 원래 우리 집에서만 쉬쉬하던 개새끼였는데 어느 날 만인의 개새끼가 되었다. 모르는 이는 엄마뿐. 그러다 동주라는 아이의 하교 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다. 동주는 욕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리고 승규의 정강이를 딱 한 번만 까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다.

애도의 방식

소란한 것을 좋아하고 소란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동주. 찻집이지만 찻집만은 아닌 미도파에서 1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날 승규의 엄마가 나타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 승규가 사고 났을 때 동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딱 한 번

'진심을 담은 돈까스'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같이 비빔던 미정과 일정한 리듬으로 매일 고기를 두드리는 석현. 아들 승규가 좋아했던 불닭볶음면과 스누피 커피 우유를 따라 먹어 본다. 집에서 라면 하나 안 끓여 먹길래 라면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승규가 죽던 날 동주가 마지막으로 미술 상담가인 소윤을 찾아갔다고 한다. 대체 동주는 무슨 말을 했던 걸까.







최태용

석현, 사장, 소윤 오빠, 교장 역

연극 <들.뜬><언덕의 바리><라이더-On the radar>
<강은효><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계곡선><비밀경찰><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야만인을 기다리며> 외



김정아

미정, 부동산 중개인, 수영 엄마,
할머니 역

- 연극 <언덕의 바리><카르타고><애인愛人><들.뜬><웰킨>
<옥상 위 카우보이><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춤의 국가><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베서니-집> 외
- 영화 <이세령, 이세령, 이세령><곤충채집><파마><보이는 어둠>
<순애야, 순애야><싸이코패스><도시락 싸는 남자>
- 드라마 <힘하게>
- 수상 100페스티벌 2013 '연기상', 제2회 태상연극상



이은정

상징, 소윤 엄마, 할머니 역

연극 <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금성 여인숙〉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괴물B>〈집집: 하우스 소나타〉
<라이더-On the radar>〈골목길 느와르-리차드3세를
찾아서〉 외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영화 <사람과 고기>〈비밀>〈전설의 주먹>〈창피해>〈유리〉
수상 제33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여자신인연기상'



신소영

소윤, 손님 역

연극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콘서트-동의>
<베서니-집><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복도 굴뚝 유골함><고인돌 위에 서서><상주국수집>
<투명인간><테레즈 라캥><비밀경찰> 외
영화 <일어서는 인간>



최호영

동주역

연극 <카르타고><용서의 신><소년대로><언스코치드>
<라이더-On the radar><편입생><우주에 가고 싶어
했었으니까>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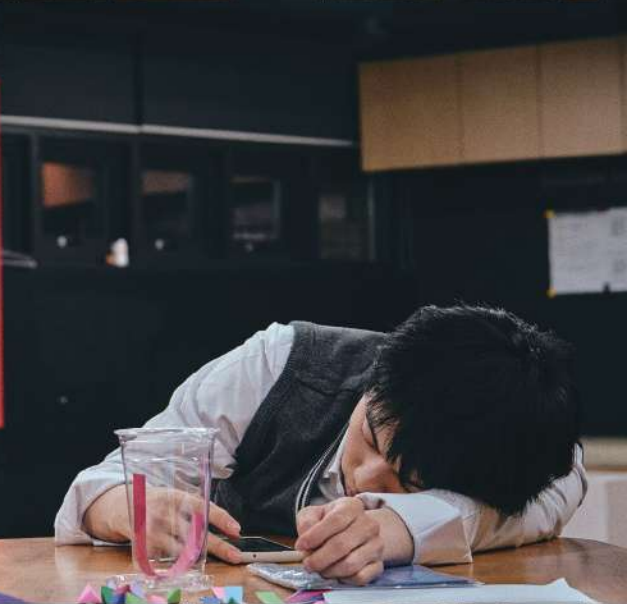


김의태

승규, 도윤, 경찰 역

연극 <연어><불장난><머핀과 치와와><올가의 방><사, 육>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 외
영화 <사라><막내가 서른이야><반신불수가족>





지면 속 활자가 극장에 세워지기까지

소설 속 문장들이 무대에서 공연화가 되는 것은 흔하고 익숙하지만 그것이 독서 그 이상의 의미로 관객들을 만나내는 것은 정말 힘겨운 여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안보윤 작가의 세 단편 소설을 <애도의 방식>이라는 하나의 연극으로 제작하기 위해 그 여정길에 올랐다.

원작 읽기 — “죽음에 대한 인과성이 아닌 각 인물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기 전 각색 작가와 연출, 배우진은 6월부터 약 두 달간의 사전 워크숍을 가졌다. 함께 모여 소설을 읽은 뒤 소설에 대한 감상과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세 작품의 매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모호하던 것이었다. 인물들이 만나는 세계는 무미건조하게 흘러가지만 모든 인물 내면에는 수그러들지 못하는 소용돌이가 돌아치는 게 느껴졌다. 이 소용돌이는 한 인간의 성장과 성찰로 단순히 귀결될 수 없는 무엇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인물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명확히 부여하지 않고, 사건 후 인물들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들이 만나는 세계를 관객들에게 드러내는 데에 무게를 심기로 했다.



텍스트의 확장 — 1인 에쥬드(Etude)* 장면 발표

1차 각색본을 기다리는 동안 배우진과 연출은 1인 에쥬드(Etude)를 통해 소설 속 장면들을 만들어 보았다. 배역과는 상관없이 인상 깊은 장면을 준비했다. 추가로 연출은 인물의 극적인 상황보다는 ‘동주가 대합실에 홀로 있는 모습’과 같이 인물들이 각자의 삶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을 상상하여 준비해 보길 제안했다.

- 은정 배우 — ‘승규의 동전을 집어 든 동주’
- 호영 배우 — ‘일자리에 잘린 후의 소윤’
- 의태 배우 — ‘미도파에서 일하고 있는 동주’
- 정아 배우 — ‘도화지에 줄을 긋는 미정’
- 태용 배우 — ‘불닭볶음면을 먹는 석현’

자신의 배역이 아닌 인물을 발표하여 인물의 내면 속 행동 원리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보기도 하고 소설에서 짧게 스쳐가는 문장을 긴 시간으로

* 에쥬드(Etude)란, 보통 연습 교본이란 뜻으로 사용되며, 그림의 밑그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짧은 문학작품을 지칭하기도 한다. 연기훈련법으로는 배우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 상황과 사건을 설정해 하나의 짧은 장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늘려 구체적 상황을 그려냈다. 배우들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인물과 장면을 만들어보며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텍스트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확장 시킴으로써 인물과 상황의 입체적 골조를 스케치할 수 있었다.

각색의 방향 — 애도의 대상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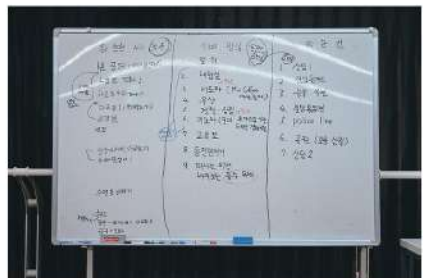
첫 각색본은 세 편의 소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은 형태였다. 각 소설의 장면들을 섞어 배치하거나 합쳐서 구성했다. 그 후 연습실에서 사전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장면과 인물의 골조를 점검시켰다. 인물마다 갖는 애도의 방식이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장면 배치를 이어갔지만 ‘승규의 죽음’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해당 장면의 배치에 따라 이야기의 원동력을 잃기도 하고 인물 각자의 애도의 방식이 드러나기보단 작품 전체가 동주의 애도의 방식으로, 동주의 기억으로 편입되었다. 보다 명확히 각 인물들을 드러내기 위해 세 소설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각색을 틀었다. 각 에피소드 속 핵심 인물의 애도의 방식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각 인물들을 책임질 수 있었다.



텍스트 작업의 연속

건축에 있어서 지면 다지기는 가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프로덕션은 소설 속 문장들이 관객들에게 의미 있게 입체화가 될 수 있도록 긴 시간 텍스트 작업에 공을 들였다. 그 과정은 치열했고 인내심을 요하는 지루한 순간들이기도 했다. 노력의 시간은 켜켜이 쌓여 배우와 디자인이 올라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생각한다. 「완전한 사과」,

「애도의 방식」, 「딱 한 번」이 단순히 배우가 낭독하여 휘발되는 활자가 아닌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에게 묵묵히 잘 지워지지 않는 질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무대디자인 노트
BYAMBAA
SHINE OD

애도의 방식 무대는 인물들의 성격 혹은 작품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넓고 텅 빈 공간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악과 소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DAC Artist 신진호
애도의 방식

2024.10.1-10.19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조명장비임차
Apexlite(대표 이차훈)

두산아트센터

원작
안보윤
『완전한 사과』 『애도의 방식』
『밤은 내가 가질게』 (주)문학동네
수록 단편, 2023)
『딱 한 번』 (안보윤, 2022)

음악감독 및 사운드디자인
JUNG

센터장
강석란

각색
김윤식

음향작업
박민희 조준식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연출
신진호

음향오퍼레이터
김성혁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출연

최태용 김정아 이은정 신소영 최호영
김의태 박서연(목소리)

영상디자인·영상제작
LIMVERT(임정은)

홍보마케팅
강소정 한나래 김예리 박지희

조연출
김성혁

의상디자인
EK

티켓
이희정 김지은

프로덕션 무대감독
김영주

의상팀
권주하

사무
고해민

무대디자인
BYAMBAA SHINE OD

의상제작
EK EK COSTUME(대표 이은경)

예술사업2팀장
박찬중

무대제작
wa stage(와스테이지)(대표 조한준)
이범용 김용선 윤진상 정병문 차승호
정우근 이종민

분장·소품디자인
장경숙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강하람 박성은

작화
작화공간(대표 이남련)
박지원 김용선 이재형

소품팀
박진아

교육기획
정다운 이보라 박세연

조명디자인
김성구

온라인 공연 영상제작
업플레이스(대표 오득영)

기술총괄
신승욱

조명어시스턴트
지소연

그래픽 디자인
박연주

음향
류호성 전경미

조명팀장
김대현

사진(포스터, 프로필)
정희승

조명
황동철 왕은지 김수민

조명프로그래머
석보미

사진(연습 및 공연)
만나사진작업실(대표 김신중)

무대
강현후 박소연

조명·영상오퍼레이터
엄진혁

SNS콘텐츠제작 및 영상 기록(연습)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조명팀

김대회 김병희 김승이 맹우영 신희
이현동 이호정 임세라 전해정 정호진

제작협력
대전예술의전당

하우스 안내원
최다연 이준 (헤드 어시스턴트 매니저)
김재원 권도이 권혁진 금다애 기나연
김재연 나현석 서유정 서장훈 송해원
신아영 윤아진 이건구 이담빈 이민주
이재빈 이재이 전윤희 지혜원 홍연재

두산아트센터는 저작권자 안보윤
작가와 출판권자 ㈜문학동네에
소셜 각색 및 사용에 대해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신소영 최태웅 최호영 김정아 신진호 이은정 김의태

어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빛을 표현하는 작가

안보윤 단편소설의 정수



2023 이효석문학상 대상 수상작 「애도의 방식」

2023 현대문학상 수상작 「어떤 진심」

2021 김승옥문학상 수상작 「완전한 사과」 수록

밤은 내가 가질게

안보윤 소설

“이 책을 다 읽은 후 나는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오래도록 기다려왔다는 것을.” **강화길**(소설가)

“안보윤의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은 위대함으로,
결코 소박하지 않은 고결함으로, 어딘가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팔을 뻗는
우리의 외로움을 따스하게 감싸준다.” **정어울**(작가, 문학평론가)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이흥도 신작

꿈의 연극

기획 • 제작 두산아트센터, 크리에이티브 VaQi
작 이흥도
연출 정은순
드라마터그 이경성
출연 김홍국, 나경민, 박여름, 성수연
우범진, 포레스트 이언 옛슬러

2024.11.26-12.14
두산아트센터 Space111

33차 두산아트스쿨: 미술

불, 흙, 물, 공기
그리고 건축

Fire,
Earth, Water,
Air and
Architecture

Studio
DAC

두산아트스쿨: 미술은
국내외 현대미술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강좌입니다

남성택

1강 10.10
불과 건축

2강 10.17
흙과 건축

3강 10.24
물과 건축

4강 10.31
공기와 건축

2024.10.10-10.31
매주 목요일
오전 10:30-오후 12:00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무료

예약
doosanartcenter.com
온라인
사전 예약(선착순 마감)

예약 문의 두산아트센터

📍 @studio.dac_doosan
☎ 02-708-5001
🌐 doosanartcenter.com

시차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배해률

연출
윤해숙

드라마티그
김지혜

출연
우미화 정대진 허지원
이주립 신지원

화수목금 7시 30분
토일 3시
(월 공연없음)

가격
장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8,000원

문의·예매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2024.10.29-11.16
두산아트센터 Space111

**DAC Artist
배해률**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artcenter.com